



김연경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였다"라는 글과 함께 올린 그림.

# 원팀 투혼의 힘... 여자배구 일본 꺾고 8강

마지막 5세트 12-14 위기 딛고  
"해보자" 외치며 대역전극 일궈  
허벅지 핏줄 터지도록 땀 김연경  
30점 맹활약하며 승리 이끌어  
목포여상 출신 세터 염혜선  
'백업'에서 '주역'으로 떠올라



31일 일본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A조 조별리그 한국과 일본의 경기. 한국 김연경(10), 오지영(9) 등이 일본에 승리하며 8강에 진출한 뒤 환호하고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였다.”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를 외치며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3차전 승리를 이끌었던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의 ‘주장’ 김연경이 한일전 승리 뒤에는 또 다른 감동의 말을 남겼다.

김연경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선수들이 어깨동무를 한 채 등글개 모여있는 그림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였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지난 31일 일본과 조별리그 A조 4차전에서 3-2(25-19 19-25 25-22 15-25 16-14) 승리를 거두며 ‘1차 목표’ 8강을 이뤘다.

‘한일전’이라는 무게감에 ‘8강’이 걸려있던 만큼 코트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세계랭킹 14위인 한국은 앞서 브라질(2위)과의 첫 경기에서 0-3 완패를 당한 뒤 A조 최약체 케냐(24위)를 3-0으로 꺾고 첫 승을 신고했다. 이어 도미니카 공화국(7위)을 폴세트 점전 끝에 잡았다.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경기에서 4세트가 9-15로 크게 벌어지자 김연경은 후배들에게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를 외쳤다. 그리고 한국은 풀볼 뭉쳐 폴세트 점전 끝에 어려운 상대를 잡고 2승 1패의 유리한 고지에서 운명의 ‘한일전’에 나섰다.

냉정하게 일본에 무게가 쏠리는 경기였다. 세계

랭킹 5위의 일본은 익숙한 안방에서 경기에 나섰다. 한국에는 전력 누수도 있었다. ‘학폭 논란’으로 이다영·이재영 쌍둥이 자매가 이탈했다.

하지만 한국은 김연경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다. 코트 밖에서는 벤치 멤버들이 좋은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함께 뛰었다.

그 결과 한국은 가장 이기고 싶었던 일본을 상대로 8강행 확정이라는 극적인 순간을 맞았다.

정신적 지주로 팀을 하나로 묶은 김연경은 역시 월드클래스였다. 김연경은 이날 양 팀 통틀어 가장 많은 30점을 폭발시켰다.

한국이 먼저 25-19로 1세트를 가져갔다.

김연경이 중요한 순간에 분위기를 바꿨다. 일본이 13-11로 좁혀들어오자 김연경이 단독 블로킹으로 득점을 만들었다. 19-17에서는 블로킹 벽을 뚫고 점수를 보냈다.

2세트에서는 두 팀이 점수를 바꿔 25-19로 일본이 이겼다.

3세트에서는 30분 넘게 팽팽한 승부가 전개됐다.

박정아가 ‘클러치백’의 면모를 보여주며 21-21에서 블로킹 득점을 만들었다. 22-22에서는 김연경의 페인트 공격이 상대를 흔들면서 한국이 25-22로 3세트를 챙겼다.

하지만 일본은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4세트에서 철벽 수비를 과시하며 한국을 당황케 했다. 결국 15-25로 4세트가 끝나면서 승부는 마지막 5세트가

지 이어졌다.

15점으로 끝나는 승부, 한국이 12-14까지 몰리면서 일본이 승리를 가져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박정아가 연속 득점을 만들며 승부를 듀스로 끌고 갔다. 상대의 공격이 라인을 벗어나면서 매치포인트. 박정아가 다시 실력을 발휘해 상대의 터치아웃을 유도했다.

허벅지 핏줄이 터지도록 땀이 김연경은 공이 라인을 벗어나는 순간 후배들과 기쁨의 환성을 질

렀다.  
김연경만큼이나 승리가 간절했던 선수, 세터 염혜선도 있다. 주전으로 뛸 경기에서 처음으로 일본을 이겼다는 기쁨에 경기가 끝난 뒤 가장 많은 눈물을 쏟아냈다.

염혜선은 목포여상 2학년 때인 2007년 월드컵 국가대표로 발탁되기도 했지만 이후 태극마크와의 인연이 없었다. 첫 올림픽이었던 2016년 리우대회에서는 ‘백업’이었다. 염혜선은 이번 한일전에서

목직한 책임감을 안고 뛰었다.

긴장감이 실수도 있었지만 앞서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 4개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했고, 일본전 5세트에서는 정확한 패스로 박정아의 결정적인 득점에 역할을 했다.

김연경의 말처럼 ‘우리’, ‘하나’라는 마음으로 뛸 여자배구대표팀. 팬들도 하나가 돼 금메달의 순간 만큼이나 감격스러운 승리의 순간을 함께 기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한국 펜싱 단체전 4종목 모두 메달

여자 사브르 대역전극 동메달  
펜싱 금 1·은 1·동 3 마무리

한국 펜싱팀이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단체전 4개 종목에서 모두 메달을 획득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김지연(33·윤치수(28·이상 서울시청), 최수연(31·서지연(28·이상 안산시청)으로 구성된 한국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이 지난 31일 일본 지바의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단체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탈리아를 45-42로 물리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10점 차를 뒤집으면서 만든 극적인 동메달은 올림픽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나온 한국의 첫 메달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처음 도입된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은 2012년 런던 대회 때 로테이션으로 빠졌다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 열렸다.

리우 대회 때 처음 출전해 5위를 기록했던 한국은 이번에는 순위를 높여 동메달을 따냈다.

또 여자 사브르 대표팀이 만든 동메달은 이번 대회 펜싱 단체전에서 기록된 한국의 4번째 메달이다. 한국은 7월 27일 여자에페팀을 시작으로 단체전 메달 행진을 펼쳤다.

강영미(36·광주서구청), 최인정(31·계룡시청), 송세라(28·부산광역시청), 이혜인(26·강원도청)으로 구성된 한국 펜싱 여자 에페 대표팀이 먼저 메달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에스토니아와 결승에서 36-32로 졌지만 9년 만에 올림픽 단체전 은메달을 가져갔다.

이어 구본길(32)·김정환(38·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오상욱(25·성남시청), 김준호(27·화성시청)가 호흡을 맞춘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는 금메달이 나왔다.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7월 28일 결승에서 만난 이탈리아를 45-26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올림픽 2연패에 성공했다.

에페 남자 대표팀도 메달 행진에 동참했다.

7월 30일 박상영(26·울산시청), 권영준(34·익산시청), 송재호(31·화성시청), 마세건(27·부산시청)이 남자 에페 동메달 결정전에서 나서 중국을 45-41로 꺾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한국 올림픽 남자 에페 단체전 첫 메달 주인공이 됐다.

그리고 여자 사브르 대표팀까지 올림픽 첫 메달을 수확하면서 한국 펜싱은 이번 대회 출전권을 따낸 단체전 4개 종목 모두 입상이라는 성과를 남겼다.

남자 사브르 개인전 김정환의 동메달까지 더하면 펜싱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에서 5개의 메달을 합작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여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 김지연이 31일 일본 마쿠하리메세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 동메달 결정전 이탈리아와 경기에서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올림픽 여자 사브르 단체 종목에서 한국 대표팀이 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 하지만 7위 선전 한국 요트 올림픽 첫 ‘탑10’

하지만(32·해운대구청)이 한국 요트의 올림픽 도전 역사를 새로 썼다.

하지만은 1일 일본 가와와현 에노시마 요트하버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요트 레이저급 메달 레이스에서 5위를 기록했다.

그는 10차 레이스 점수 114점에 메달 레이스 점수 10점을 더해 총점 124점을 기록했다. 평균 98점을 받은 하지만은 최종 순위 7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국 요트 선수 올림픽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요트의 올림픽 최고 성적은 하지만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세운 13위였다.

요트는 하루에 한 차례씩 총 10차례의 레이스를 펼친다. 1등은 1점, 2등은 2점식으로 벌점을 매겨 10차례 레이스 점수의 평균으로 순위를 가른다.

가장 성적이 낮은 한 차례 레이스의 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한다.

하지만은 10차 레이스에서 35명의 참가 선수 중 7위를 기록해 한국 선수 최초로 올림픽 메달 레이스에 진출했다.

그는 메달 레이스에서 5위의 높은 성적을 거뒀지만, 순위를 더 끌어올리지 못했다.

우승은 평균 53점을 받은 멧 매트 웨른(호주)이 차지했다. 톤치 스티파노비치(크로아티아)가 은메달, 헤르만 토마스고르(노르웨이)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모가디슈
2관	블랙 위도우
3관	보스 베이비 2, 정글 크루즈
4관	보스 베이비 2, 정글 크루즈
5관	모가디슈
6관	모가디슈
9관	방법: 재차의
7관 씨네커플	모가디슈, 랑종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8관 씨네커플	보스 베이비 2, 방법: 재차의, 방심제한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1. 08. 21.(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



GAC 11시 음악산책 5 조진주, 소리너머  
일시: 2021. 08. 25.(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